

국립돌리사

군산의료원, 운영평가 A등급 획득

군산의료원(원장 김영진)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전국 39개 병원(지방의료원34개, 적십자병원5개) 중 A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거점병원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A등급(8개소), B등급(15개소), C등급(11개소), D등급(4개소)으로 평가하는 상대평가로 바뀌었다.

군산의료원은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되었는데, 합리적 운영(76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81점), 공공적 관리(92점) 부분에서 전년도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김영진 원장은 "지난 전라북도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 운영평가 A등급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군산시민과 서해안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익산시가 경제적, 시간적인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익산시 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익산시 거주 세무사 15명이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세에 관련된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무료로 상담하며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익산시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담당지역 세무사 확인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익산=장영원기자

군산청소년문화의집 나눔봉사단 독거노인 등 5백장 연탄 전달

지난 12일 군산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훈) 소속 사랑나눔 봉사단 학생들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을 실시했다.

이번 연탄배달에는 중·고교생 15명이 봉사활동에 동참해 지역 문화학습센터와 독거노인 등 2가구에 5백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연탄을 전달받은 서모(77·남)씨는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걱정했는데 학생들이 연탄과 함께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줘 더욱 고맙다"고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중앙여고 김민서 학생은 "연탄 나르기가 힘이 드는 일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봉사할 수 있게 준어린 환경에 감사하다"며 환하게 웃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은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의 회(회장 박봉수)에서 우리지역 인재육성에 써달라며 정성스럽게 모은 성금 300만원을 익산사랑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총 32명으로 구성된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의회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한바탕축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 지방자치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박봉수 주민자치위원장의협의회 회장은 "뜻 깊은 일에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현을 이사장은 "지역발전의 기둥이 될 꿈나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성스럽게 기부한 성금은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기자

군산원협·제주감귤농협

용흥작목회 활발한 교류 '눈길'

47년 자매결연 관계

47년 자매결연 관계인 군산원예농협(조합장 이태세)과 제주감귤농협 용흥작목회(회장 김시창)의 상호 활발한 교류활동이 시선을 끌고 있다.

군산원협은 제주감귤농협 용흥작목회 임원진들이 지난 10월 말 군산을 방문한데 따른 답방 형식으로 제주 용흥작목회를 방문한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제주감귤농협 용흥작목회가 소개한 용흥 마을이 전국 최초 농산물우수관리(GAP) 선도마을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GAR(Good Agricultural Practice)은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관리 단계에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 농업환경과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 유해물질을 알맞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인증 제도이다.

용흥 마을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컨설팅과 주민 교육, 소통회의 등을 통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약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고 방충망 등을 보수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 포장까지 각종 시설을 현대화했다.

또한 마을 주민들 스스로 농장 주변에 버려지는 농약병, 페이닐과 같은 오염원을 제거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87ha 면적에 GAP인증을 취득하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용흥작목회에서 올해 생산 예정량인 2,730톤의 감귤 대부분은 군산원예농협을 통해서 군산 시민에게 공급된다.

군산원협이 전국 최초로 농산물우수관리 선도마을에 선정된 제주감귤농협 용흥작목회와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군산원협과 제주 감귤농협 용흥작목회는 지난 1970년 자매결연 후 현재까지 47년 이상 동안 100ha 면적에서 생산되는 감귤을 군산원협에 지속 공급하고 있다.

매년 군산원협 출하량은 10kg 15만

상자 이상이고 판매 금액은 매년 약 15억~20억원에 이른다.

군산원협은 군산 쌀과 보리 등의 지역 농특산물을 제주감귤농협 용흥작목회에 공급하는 등 상호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용흥작목회 김시창 회장은 "다양한 먹물거리를 넘어 이제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GAP인증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된 농산물인 감귤 등을 군산에 공급할 수 있어 보람된다"며 "앞으로 상호 교류를 한층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원협 이태세 조합장은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감귤철을 맞아 군산원협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감귤시장을 개설해 절입배추, 배추, 무, 양념류 등을 공급하는 물론, 사랑의 감귤장자를 담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대, 전북 최초 다문화학 박사과정 개설

오늘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 · 전공 관계없이 석사학위 소지자 지원 가능

군산대학교가 2017학년도부터 전북 최초로 다문화학 박사과정을 개설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다문화학 박사과정은 오늘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하며, 전공에 관계없이 석사학위 소지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개설 교과목은 한국어교육, 다문화·문화일반, 경영, 경제, 행정, 법률, 사회복지, 통계분야와 연계된 융복합 분야 34개 과목이다.

교수진은 다문화, 한국어교육, 문화·사회복지, 경제, 경영, 행정, 법, 통계

전문가 교수들로 구성돼 있으며, 다문화의 여러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융복합적 강의와 토론 수업이 이뤄진다. 최근 한국 사회는 다문화·다문화적 성격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부 및 민간기관 종교단체, NGO단체 등에서 각 분야별 다문화전문가에게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전공 박사과정이 폭넓게 개설돼있지 않아 다문화와 관련된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군산대의 다문화전공 박사과정 개

설은 전북지역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전문연구자들의 요구와 다문화전문가를 채용하려는 고급 기관 및 단체의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대 국어국문학과 박시균 교수는 "다문화가정 증가로 전북지역 내 관련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박사과정 개설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일반 대학원이지만 직장인들을 배려해서 야간 수업 위주로 강의 시간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성료

군산시립도서관에서 마련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군산과 관련한 문학·예술·영화 등을 통해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산시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사)한국도서관협회가 함께 하는 2016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문화와 예술, 군산으로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부터 강연과 탐방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차 프로그램에서는 '군산 격변기 예술활동과 삶 바라보기', 2차 프로그램은 '군산의 문화적 자산과 문화적 상상력', 3차 프로그램은 '영화 속 군산 이야기'라는 주제로 총 320명이 참여했다.

이번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인문학이 누구에게나 생활 속의 학문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친숙한 내용을 담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홍식 군산시립도서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이 함양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해 시민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홍식 군산시립도서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이 함양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나포면, 마을 리더 단합대회 행사

군산시 나포면은 지난 11일 자생단체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금산군에서 마을 리더 단합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나포면 발전을 위해 봉사해 온 자생단체 리더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했다.

특히 나포면 주민들의 소망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유치를 위해 면소재지 정비사업 지역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산 추부면 마전권역과, 최근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완공한 남이면 고급관광역을 방문해 주민주도형 사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운영 상황 및 성과를 벤치마

킹했다. 또한 금산군 기러기공원 캠핑장에서 족구, 발야구, 풍선 터뜨리기, 고리던지기, 보물찾기 등 체육경기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나포면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면 발전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규모 행사진행 및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하모니센터 신축,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면사무소 리모델링, 안전한 통행 및 사고방지를 위한 십자도로 인도 개설, 면 소재지와 금강을 잇는 철새로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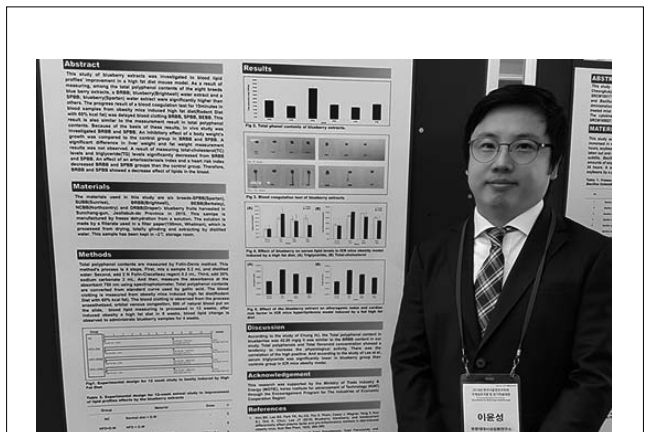
익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행정부 장관상 수상

익산시가 지난 10일 전북도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전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익산시 강금진 규제개혁계장으로 제4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주)하림식품, (주)HS푸드 등을 유치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시 차원에서 개선 노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부각하여 최고상인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용연 기획예산과장은 "규제개혁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구슬땀이 인정받았다"며,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심포지엄 원광대 이윤성 연구원 우수 포스터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대사성질연구소 이윤성(30) 연구원이 2016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심포지엄에서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식품과 영양에 관한 연구 촉진, 식생활 개선을 통한 국민영양보건 향상 및 학술문화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된 학회로서 식품 관련 연구자와 기업체 전문가를 비롯해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국내 저명 학회다.

최근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이윤성 연구원은 '블루베리 추출물의 혈중지질 개선 효과'를 주제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해 학회 참가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을 활용한 혈압 저하와 혈중지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물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고지방 식이를 통한 마우스에서 블루베리가 생리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연구소장 박성훈 교수는 "대사성질연구소는 기능성 식품과 대사성 질환 관계에 대한 주제로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을 비롯해 원광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실제 적용시험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윤성 연구원은 그동안 진행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전문 학승지에 성과를 보고하는 등 학문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기자



원광대병원-고창석정엘파크병원 업무협약

원광대학교병원은 지난 11일 김태균 진료처장 및 관계자 일행이 전북 고창군 석정리에 자리한 석정엘파크병원을 방문 3층 회의실에서 협력병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주민 보건 의료 향상과 지역 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원광대병원과 석정엘파크병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환자 탐방과 강연을 통해 현장속의 인문학, 생활속의 인문학이 실현되어 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의 새로운 독서문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대한 의료봉사 활동 등에서도 상호 협조하기로 명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활동 및 의료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병원은 의료진단체계 개선에 따른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 4월 진료협력센터를 개소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환자 진료 및 의료, 회송이 더욱 원활할 수 있도록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간 업무 협약 체결을 꾸준히 성사시켜 왔다.

원광대병원은 1,2차 지역 병·의원들과의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 발전의 의료 환경 조성과, 열악한 지역 주민 보건의료 향상에 심혈을 쏟고 있다.

/익산=장영원기자

군산지역 수출·입 전년 동기대비 감소

10월 군산지역 수출·입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세관(세관장 이범주)에 따르면 10월 군산지역 수출은 10% 감소한 31억불, 수입은 15% 감소한 26억불을 기록했으며, 대외무역수지는 수입불량 감소에 따라 30% 증가한 5억불의 흑자 기조를 보였다.

특히 군산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선박과 자동차 수출 실적은 현대중공업(주), 한국지엠(주)의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9.3억불), 50%(5.8억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선박(928백만불), 자동차(578백만불, 부품포함), 기계류(486백만불), 유기화학물(282백만

불), 무기화학물(281백만불)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곡물(635백만불), 사료(294백만불), 철강(289백만불), 펄프(193백만불), 기계류(126백만불)순으로 기록됐다.

지역별 수출은 중국(376백만불), 벨기에(241백만불), 미국(187백만불), 싱가포르(167백만불), 마셜 제도(164백만불), 그리스(140백만불) 순으로 수출실적을 나타냈다.

수입은 싱가포르(51.4백만불), 중국(506백만불), 미국(258백만불), 스위스(210백만불), 일본(206백만불), 홍콩(201백만불)순으로 수입실적을 기록했다.

/군산=문정곤기자